



일흔 넷 노익장

나이는 숫자에 불과, 제판현장서 펄펄

새벽 4시 30분. 7학년 4반 양창윤(동광문화인쇄(주) 제판실)부장의 하루가 어김없이 시작된다.

세면이라도 마칠라치면 머느리는 어김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린다. 이른 출근길을 재촉하는 자신만큼이나 힘겨울 머느리의 새벽 상(床) 시중은 10년을 이어오는 시간동안 언제나 그렇게 정성이 가득하다.

5시 15분이면 어김없이 화정에서 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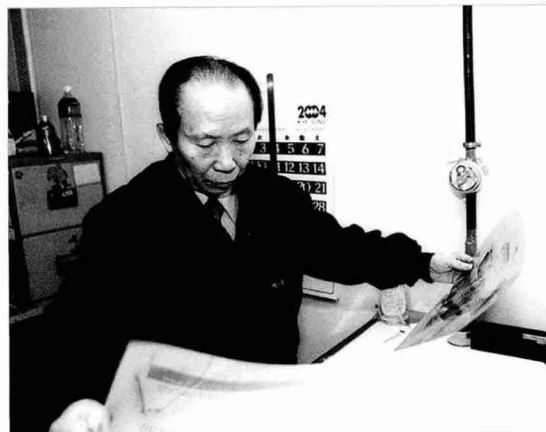
포로 나가는 82번 버스에 올라탄다.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도 버스엔 자신만큼이나 이른 새벽을 재촉하는 군상들이 들성들성 얹아 있다. 이 시간도 이른 편은 아니다. 5시 15분에 올라탄 82번 버스는 동일 노선 세 번째 운행 버스인 때문이다.

5시 15분에 버스에 올라탄 양창윤 부장이 당산역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략 6시. 양창윤 부장이 근무하는 동광문화인쇄(주)의 기계 가동 시간은 9시이다. 9시에

맞춰서 8시 30분이면 다들 출근해 회의와 기계 작동 준비를 하곤 한다.

다른 직원들의 출근시간보다 대략 2시간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양창윤 부장의 출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지각 때문이다. 화정에서 당산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건 새벽에 출근하니깐 가능한 이야기다.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은 2시



양 부장이 주로 하는 일은 터잡기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에서 나이를 고려해 맡긴 일이고 제판 관련 일은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간 정도 걸릴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언제든지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니깐.”

그의 나이는 벌써 일흔 넷. 이쯤 되면 현역이 아닌 고문 축에 속할 나이이다. 하지만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단 한번의 지각도 인정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양 부장을 아직도 당당한 현역으로 자리 매김시키고 있다.

인쇄 밥 40년! 후회는 없다

양 부장의 인쇄와의 인연은 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함경북도 함흥이 고향인 그가 인쇄업에 뛰어든 것은 군대에서의 인연 때문이다. 측지(測地) 부대에서 근무하던 그는 3년의 근무 년한이 끝난 뒤에도 군무원으로 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14년 동안 인연을 맺은 군에서 만난 선임 덕분에 지금의 직업인 제판 쪽과 관계를 맺게 됐다.

타고난 성실성 덕분인지 양 부장은 첫 출발과 관계가 깊었다. 삼문인쇄(곽득룡

사장)가 마포공장으로 확대 이전할 때도 그랬고, 동광문화인쇄(주)와 인연을 맺을 때도 그랬다.

양 부장이 동광문화인쇄(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87년 6월의 일로 동광문화인쇄(주)가 양평동 시대를 열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83년에 동광인쇄사를 설립한 장길산 회장이 사세확장을 목표로 인쇄, 지류판매, 출판업 및 무역업까지 진출하면서 당시에 걸코 적지 않았던 57살의 그를 제판실 책임자로 부른 것이다.

양 부장이 주로 하는 일은 터 잡기이다. 하지만 터 잡는 일은 회사에서 나이를 고

려해 맡긴 일이고 제판 관련 일은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다 못해 정밀도를 요하는 작업까지도 말이다. 다소 버거워 보이는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 양 부장은 지금껏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단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노익장의 이러한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동광문화인쇄(주) 제판실에는 그 외에도 58살, 57살 노익장(?)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이 가능한 데는 필름 제작은 고객사에서 맡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 부장이 보여준 성실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판실에서 없어진 '지각'이라는 단어도 양 부장이 가져온 기업문화 중에 하나이다.

집에서도 아직 현역

회사에서 받는 몇몇한 현역대우는 집에서 마찬가지이다. 양 부장과 비슷한 절차를 걸쳐 퇴직을 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 자식들의 집에 얹혀 살면서 꼬박꼬박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겠지



만, 아직도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고 있는 그가 가지는 집에서의 위치는 아직도 가장 그 자체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만해도 지난 94년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돈으로 마련한 집이다.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는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퇴근길에 양 부장이 직접 과일 공수에 나서는 탓이다. 고기도 마찬가지. 재정 자립이 집안에서의 가장 역할이 가능하게 한 것도 있지만 양 부장은 그 공을 며느리에게 넘겼다.

“우리 며느리가 보통 착한 게 아니다. 집에서 뭐 먹을 거 하나라도 생기면 항상 나를 먼저 챙긴다.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도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엄마가 뭘 만들면 시키기도 전에 ‘이건 할아버지 것’ 하면서 나를 먼저 챙긴다. 다 며느리가 잘 하니깐 가능하지 시아버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다보니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9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들의 용돈을 챙겨주는 일은 잊지 않으며, 특히 같이 사는 아이들에게는 한 달에 한번 잊지 않고 용돈을 챙겨주고 있다.

보람을 안겨준 인쇄 기술

양 부장은 일흔 넷의 나이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뚜렷한 현역생활이 가능한 연유를 40평생을 같이한 인쇄기술로 꼽았다.

“주변을 둘러보면 내 또래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잘 해야 아파트나 회사 경비나 서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난 뚜렷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복에서 딸랑 혼자 내려와서 아들, 딸 혼자 치르고 이만큼 사는 게 인쇄 기술이라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 이런 좋은 기술이 없었으면 어디 가서 이 나이에 뚜렷한 대우받으면 살 수 있었겠느냐. 지금 업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들 편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각오로 달려들면 못할게 뭐 있나. 인쇄업종도 마찬가지다. 나를 보라. 인쇄라는 기술하나라도 이 나이에든 현역 대우받으면서 잘 살아가지 않는 난 말이다”

양 부장은 업계 진출을 꺼리는 젊은이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용우 기자〉

한식(음력 3월 5일, 2004년 3월 23일)

유래

진나라 개자추(介子推)가 면산에 숨어 살았는데 그의 은혜를 입은 문공이 나와 살기를 권했으나 듣지 않자 산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타죽고 말았음을 애석히 여겨 불을 금하고 야제를 지내 그 혼을 위로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대의 종교적 의미로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불(新火)을 만들때 그에 앞서 어느 기간동안 묵은불(舊火)을 일절 금

지하였던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속

· 물한식 -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는 한식을 물한식이라 하며, 한식날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했다.

· 성묘 - 여러 가지 주과(酒果)를 마련하여 선산에 가서 성묘하고, 조상의 묘가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고 주위에 식수도 하고 사초(莎草)도 했다.

· 절사(節祀) -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陵園)에 제향하고, 일반인들은 술, 과일, 포, 식혜, 떡, 국수, 탕, 적 등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절사라 한다.

음식중속

· 해수병에 좋다고 하여 이날 진달래꽃을 따서 술을 마련해서 먹고 콩볶음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도록 하였음

· 약밥, 썩떡, 찬밥을 먹으면 일년 내내 병이 없다고 함

세
시
풍
속